

MZ세대의 유쾌한 도전...승패 떠나 올림픽 즐긴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체조 사상 첫 은메달 주인공이 탄생했다. 역사적인 메달이었지만 시상대에 선 도마 은메달리스트 여흥철은 침울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많이 고생했다. 1등을 목표로 했다. 선생님들에게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렸다.

'도마 황제' 여흥철은 2차 시기 착지 실패로 러시아의 네모프에 0.031차로 뒤졌고, 금메달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되자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25년이 지나 2020 도쿄올림픽에서 또 다른 역사적인 순간이 만들어졌다.

여흥철의 딸 여서정이 대를 이어 올림픽 무대에 섰고, 아버지처럼 자신의 이름을 딴 '여서정'이라는 기술을 선보이며 1차 시기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2차 시기에서 아빠와 닮은 실수가 나왔다. 착지 과정에서 세 발이나 물러나면서 여서정은 동메달을 획득했다.

아쉬울 수 있는 실수였고 결과였지만, 여서정의 표정과 이를 지켜보는 이들의 표정은 25년 전과 달랐다. 여서정은 메달의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했고 국민도 함께 웃었다.

1등이 최고의 가치가 되던 올림픽은 끝났다.

올림픽을 지켜보는 국민은 아름다운 도전과 과정에 뜨거워 박수를 보내고 감동을 받고 있다. '요즘 선수'들도 올림픽 자체를 즐기면서 특별한 순간들

김민정 아쉬운 패배에도 "재밌었다" 김우진 "어떻게 해피엔딩만 있겠냐" 우상혁 "높이 날 수 있어 행복했다"

상대 선수 손 번쩍 들어주기도 팬데믹 시대 신선한 감동 선사

을 선물해주고 있다.

김민정은 슛오프 접전 끝에 사격 여자 25m 권총 은메달을 기록했다.

경기 중반까지 1위를 달리다 동점을 허용하면서 전제된 슛오프. 김민정은 1점에 그치면서 4점을 쓴 상대에게 금메달을 내줬다.

아쉬운 패배였지만 경기가 끝난 뒤 김민정은 "스오프가 재미있었다. 은메달이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 어리고 다음이 있다"고 웃었다.

남자 수영 100·200m에서 놀라운 질주를 펼친 황선우도 메달 실패의 아쉬움이 아니라 "기록이 잘 나와서 기분이 좋다"며 자신의 성과에 기뻐했다.

2회 연속 올림픽 전 종목 석권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양궁 대표팀의 김우진도 "아쉬움이 없을 순 없다. 최선을 다했다. 8점을 쓴 화살이 패인이지만 이미 내 손에서 떠났고 누가 봐도 화살이 아니고 내가 쓴 화살이다"며 "결과를 아쉽지만 그게 또 삶이다. 어떻게 해피엔딩만 있겠냐"는 인터뷰로 깊은 울림을 줬다.



일본 에런 울프가 금메달을 따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자 안아주는 조구함(왼쪽).

유도 73kg의 안창림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후회 없다"며 스스로 박수를 보냈다.

재일교포 3세로 설움도 많았던 만큼 그의 바람은 일본에 애국가를 울리는 것이었다. 간절했던 꿈은 이루지 못 했지만 안창림은 최선을 다한 동메달과 함께 웃었다.

금메달을 눈 앞에 두고 결승에서 패했지만 유도 조구함은 자신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상대의 손을 번쩍 들어 축하해줬고, 태권도의 이다빈도 금메달을 가져다 상대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축하의 인사를 보냈다.

그 장면을 지켜본 국민도 은메달의 아쉬움이 아닌 축하의 인사로 이들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

남자 높이 뛰기 우상혁의 웃음도 특별했다.

바를 넘기 전 환한 미소로 관계자들의 박수를 유도하며 눈길을 끈 우상혁은 말 그대로 올림픽을 즐기며 지켜보는 이들에게 신선한 기쁨을 주었다.



김민정이 사격 여자 25m 권총 시상식에서 은메달을 보여주며 기뻐하고 있다.

한국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한국 높이뛰기 사상 첫 결승에 이어 4위까지 기록한 그는 경기가 끝난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높이 날 수 있어서 행복했다"며 최고의 하루를 기록했다.

여자 농구 박지수도 3전 전패로 자신의 첫 올림픽을 마무리했지만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많이 부족했지만 어릴 때부터 막연히 동경해왔던 스포츠인의 축제인 올림픽에서 뛸 수 있어 행복했다. 우리 여자농구 대표팀은 이번 시합을 통해 모두가 성장했고, 앞으로 더 나은 모습과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남겼다.

금빛 메달이 아니어도, 승리가 아니라도 괜찮다. 코로나19로 더 가슴 졸이며 더 많은 시간 땀을 흘렸던 '태극전사'들이 팬데믹 시대의 시름을 잊게 하는 감동과 기쁨을 선물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높이뛰기 우상혁이 2.39미터 실패에도 "괜찮아"라고 외치며 경기를 즐겼다. /연합뉴스

노련미에 막힌 불꽃타...여자탁구, 독일에 역전패

한국 여자탁구가 단체전 준결승 문턱에서 독일에 아깝게 져 2020 도쿄올림픽을 '노메달'로 마쳤다.

신유빈(17·대한항공), 전지희(29·포스코에너지), 최효주(23·삼성생명)로 꾸려진 한국 여자탁구 대표팀은 3일 일본 도쿄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단체전 8강전에서 한잉(38), 산샤오나(38), 페트리샤 솔자(27)가 나선 독일에 2-3으로 역전패했다.

앞서 전지희, 신유빈이 나선 개인 단식과 전지희가 이상수(삼성생명)과 짝을 이뤄 출전한 혼합복식에서 모두 입상하지 못한 한국 여자탁구는 가장 메달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던 단체전에서도 메달을 수확하지 못하면서 이번 대회를 빈손으로 끝냈다.

한국 여자탁구는 2008년 베이징 대회에서 단체전 동메달을 따낸 뒤 3개 대회 연속으로 올림픽 메달을 따내지 못했다.

독일은 세계랭킹 3위로 한국(4위)보다 한 계단 높은 데다 2016 리우 대회 은메달 멤버 그대로 나와 버거운 상대였다.

독일에서 한잉을 내보낸 4단식, 승부의 키를 쥐고 나선 건 '막내' 신유빈이었다.

신유빈은 첫 세트를 6-11로 내줬지만, 상대의 구질에 적응해 나가더니 두 세트 끝에 두 번째 세트를 가져가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하지만 결국 한잉의 노련미를 당해내지 못하고 내리 두 세트를 내줘 1-3(6-11 12-10 6-11 9-11)으로 졌다.

신유빈은 패색이 짙어지던 마지막 4세트, 4점 차로 뒤지던 상황에서 '불꽃'처럼 강력한 드라이브를 때리며 필사의 추격에 나섰다. 상대의 노련한 커트를 뚫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마지막 5단식에서 최효주가 산샤오나에게 0-3(8-11 6-11 9-11)으로 지면서 한국의 8강 탈락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3일 일본 도쿄체육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여자 탁구 단체전 8강 한국-독일전에서 신유빈이 공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게인 1997...전남-대전 8일 '레트로 데이'

전남과 대전이 추억을 떠올리는 레트로 유니폼을 입고 한판 승부를 벌인다.

전남드래곤즈가 8일 오후 8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리는 K리그 2 2021 24라운드 대전하나시티즌과의 경기에서 '레드맨(Ledman)'과 함께 하는 2021 레트로데이를 연다.

전남과 대전은 '레트로데이'에서 전성기 시절 유니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제작한 '레트로 유니폼'을 입는다.

전남은 1997년의 추억을 떠올린다.

1997년은 노상래, 김태영, 마시열 등을 앞세워 FA컵 우승, 리그도컵 준우승, 아디다스컵 준우승, 프로스펙스컵 3위 등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해다.

전남은 1997년 유니폼을 모티브로 해 공식 키트 스폰서인 푸마와 함께 레트로 감성에 세련미를 더한 유니폼을 제작했다.

대전도 대전시티즌이라는 이름으로 FA컵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2001년 유니폼을 재해석해 레트로 유니폼을 준비했다.



추억의 무대를 마련한 전남은 '레트로데이'를 맞아 제작한 기념품을 관중들에게 선착순으로 선물할 예정이다.

전남과 대전 선수단은 오는 9월 13일 대전경기에서도 레트로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오른다.

한편 이번 행사는 중국의 LED 디스플레이 기업인 레드맨이 후원하며, 유니폼은 전남 온라인 쇼핑몰인 '용삼' (www.jdfcshop.com)에서 구입할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구례군청 여자씨름 단체전·개인전 우승

여자씨름의 강자 양운서(구례군청)가 '위더스' 제약 2021 민속씨름 고성장사씨름대회 및 제1회 고성여자장사씨름대회에서 나란히 개인전 정상에 올랐다.

양운서는 지난 2일 열린 대회 여자부 매화급(60kg 이하) 결승전(3전 2승제)에서 같은 팀의 선채림을 연속 안다리로 제압하고 우승했다.

이로써 양운서는 자신의 통산 13번째 매화급사뿔가마를 탔다.

국화급(70kg 이하) 결승에서는 '절대 강자' 임수정이 강지현(괴산군청)을 누르고 자신의 19번째 장사(국화급 17회·무궁화급 2회) 여자전하

장사 1회)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무궁화급(80kg 이하)에서는 최희화(안산시청)를 2-0으로 물리친 이다현이 통산 11번째 장사(무궁화급 10회·여자천하장사 1회)에 등극했다.

같은 날 열린 여자부 단체전 결승(팀 간 5전 3승제·개인 간 3전 2승제)에서는 구례군청(전라남도)이 안산시청(경기도)에 3-0으로 완승했다.

양운서(매화급), 이세미(국화급), 선채림(매화급), 엄하진(국화급), 김다영(무궁화급)으로 구성된 구례군청은 첫판 양운서를 시작으로 이세미, 선채림이 연달아 승리를 챙겨 손쉽게 우승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모가디슈
2관	더 수어사이드 스퀘드
3관	블랙 위도우
4관	더 수어사이드 스퀘드
5관	모가디슈
6관	모가디슈
9관	보스 베이비 2
7관 씨네커를	방법: 재차의
8관 씨네커를	정글 크루즈 이스케이프 룸 2: 노 웨이 아웃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박수를 보내다

독주회 시리즈 II
Jac-yoon Won Piano Recital

GAC기획공연 포시즌
박수를 보내다: 독주회 II
원재연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2021. 08. 21.(토) 19:3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5

GAC 11시 음악산책 5
조진주, 소리너머

일시: 2021. 08. 25.(수)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2